

정부, '고가·다주택 보유자' 겨냥... 종부세 추가 과세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 공정시장가액비율 90%까지 인상 과표 6억 초과·3주택 이상 다주택자, 1만1000명 추가 과세 "다주택자, 임대주택 등록 후 장기임대하면 종부세 비과세"

고가 및 3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는 앞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추가 과세된다. 저가 및 1주택 보유자는 종부세 부담 인상이 최소화된다. 특히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최근 공시 가격 인상 및 재산세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최대 90%까지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90%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최근 공시가격 인상 효과 등을 고려

하고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토지70%)과의 격차를 감안했다. 과세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율도 조정한다. 과표 6억원 이하 주택분 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27만4000명 중 24만 8000명(91%)이 세율 인상에 제외된다. 과표 6억원 초과 구간 주택분 세율은 0.1~0.5%포인트 인상된다. 현행 최고 2% 세율이 최대 2.5%까지 오른다. 다만 과표 6억~12억원 구간의 세율은 권고안보다 0.05%포인트 추가로 오른다. 1주택자는 시가 23억~33억원

의 주택, 다주택자는 시가 19억~29억원의 주택 보유자가 대상이다. 정부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권고한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 방안을 받아 들여 과표 6억원(시가 합계 19억원)을 초과한 3주택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0.3%포인트 추가 과세하기로 했다. 이는 부동산시장의 중장기적 안정을 도모하고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려는 목적에서 추가된 정책이다. 다만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과세에서 제외된다. 종합합산토지분 세율은 재정개혁특

위의 권고안과 마찬가지로 과표구간 별로 0.25~1%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이에 최고세율이 현행 2%에서 최대 3%까지 인상된다. 별도합산토지분 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2016년 기준 별도합산토지 가운데 상가·빌딩·공장 부지의 비중이 88.4%를 차지했다. 별도합산토지가 생산 활동에 사용되는 토지라는 점을 배려했다. 이번 종부세 개편방안에 따라 세율 인상의 영향을 받는 대상자는 2016년 기준 2만6000명으로 전체 소유자의 0.2% 규모다. 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로서 0.3%포인트 추가 과세되는 대상은 1만1000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3주택 이상 보유자를 추가 과세한 이유와 관련, "시가 합계 19억원(과표 6억원) 초과 3주택 이상 고액 자산가는 추가 과세하지만 그 이하는 추가 과세에서 제외했다"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장기임대(8년)시 종합부동산세는 비과세된다"고 설명했다. 별도합산토지 세율을 현행 유지한 것을 두고 "별도합산토지는 대부분 상가·빌딩, 공장 등의 부속토지로 생산 활동과 관련돼 있다"며 "세율 인상 시 임대료 전가, 원가 상승 등으로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감안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종부세법 개정법률안이 올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의 공시가격이 6억원(1주택자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또는 공시지가 5억원(별도합산토지 80억원)을 초과하는 종합합산토지의 보유자는 내년 6월 1일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들은 개정 종부세법에 따라 내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김영태 기자

고산농협, 이동상담실 운영으로 법률적 불편·소비자문제 해소

완주 고산농협(조합장 국영석)은 지난 6일 고산농협 월경센터에서 농업인들의 법률적 불편과 소비자문제 해소를 위해 관내 여성농업인 100여명을 대상, '농협 이동상담실'을 운영했다. 행복한 농업인을 위한 '농협 이동상담실'은 한국소비자원 장인영 부장과 대한노래강사회 조진희 회장 등 전문가의 강의로 진행, 개별 상담시간을 제공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고산농협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농업인들을 위해 법률 소비자교육 등 농업인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 이동상담실'은 농업인의 영농 및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법률·건강·소비자 문제에 대한 각종 고민을 각 분야별 전문가가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인 농촌현장에서 이동 강의 및 상담을 통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는 현장위주의 농업인 실익사업이다. /김영태 기자

전북은행, '도민과 함께하는 리더스포럼' 성료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지난 4일 전북은행 본점에서 전북도민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민과 함께하는 제13회 리더스포럼'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해박한 피부 지식과 뛰어난 입담으로 다양한 방송 및 강연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부과전문 의(원장 함익병)은 '건강한 피부 건강한 생활'이라는 주제로 큰돈 들이지 않고 피부를 건강하게 관리해, 리더로서 외모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흥미로운 강연을 펼쳤다. 특히, 피부과전문(원장 함익병)은 피부에 대한 잘못된 인식부터 바로잡을 것을 강조, 자외선, 미세먼지, 황사 등 피부의 적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 피부노화 및 질환을 예방,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방법들을 생생하게 소개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전북은행 은행장은 "피부도 경쟁력인 시대에서 이번 강연이 삶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길 바라며, 전북은행은 앞으로도 고객과 지역의 발전이 은행의 발전이라는 생각, 지속적으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따뜻한 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은행은 '인문, 경제, 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수준 높은 명사초청 강연과 '참석자 상호간 교류'를 통해, 전북도민 모두가 미래를 주도하는 '창의적인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격월로 '리더스포럼'을 실시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전북도내 도농농축협, 도농상생·균형발전도모 협약

농협중앙회 도농상생 한마음대회서

농협중앙회(회장 김병일)는 지난 5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도시·농촌 농축협간 상생 협력적 조직문화 구축과 균형발전을 위한 '2018 도농상생 한마음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200여개 도시·농촌 농축협이 참석했으며 전북에서는 전주농협, 공덕농협, 정읍농협, 삼골농협, 남원농협, 운봉농협, 순정축협, 구림농협, 전주김제안주축협, 화산농협, 고창부안축협 등 11개 농축협이 참여했다. 또한 참석한 도시·농촌 농축협은 농축산물 판매 및 상호교류 확대를 위한 도농상생협약을 체결, 도농상생과 균형발전을 도모 하였다. 도시 농축협은 상생협약을 체결한 농촌 농축협에 농업인의 영농



농협중앙회는 지난 5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도시·농촌 농축협간 상생 협력적 조직문화 구축과 균형발전을 위한 2018 도농상생 한마음대회를 열었다.

전국의 도시 농축협은 도농상생기금 출연을 통해 농축산물 수급불안, 가격저축 등에 따라 발생한 농촌 농축협의 경제사업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도농간 상생발전을 도모했으며 출하선급금을 통해 농촌 농축협의 경제사업에 활력을 주고 있다. 전주농협(본부장 유재도)은 "상생협약 및 농기계 지원에 참여해 준 도시 농축협에 감사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도시와 농촌 농축협이 더욱 상생,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협, 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과정 현장교육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과 도농협동연수원(원장 권갑하)은 농립축산식품부의 지원, 도내 다문화가족 및 지역주민 120명을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1박 2일 과정으로 농협전북지역본부 강당에서 '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과정' 6기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과정'은 경기도 고양시의 도농협동연수원에 2박 3일 인교식 교육으로 진행되어 참석이 어려웠던 다문화 가족이 많았는데, 이런 애로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현장교육을 연 2회 진행했다. 찾아가는 현장과정은 ▲농업·농촌의 가치 이해 강의 ▲부모·자녀 관계 증진을 위한 가족스포츠 ▲양성평등교육 ▲부모·자녀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이 진행됐다. 또한 우리 역사와 문화 이해를 위해 지리산 화엄사, 여수엑스포 등지를 견학했다. /김영태 기자

코레일 전북본부, 대학생들에게 일자리 기회 제공

코레일 전북본부(본부장 김진준)은 지난 7일부터 근로 장학학생들을 전주와 익산 등 도내 주요역에 배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국가교육근로 장학사업'을 시작했다. 이번 장학사업은 코레일 전북본부와

전주, 익산지역 주요대학이 지난 2일 체결한 지역인재 양성 및 직업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한 국가교육근로 장학사업 협약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다. 각 학교에서 일정 기준에 따라 선

발된 근로장학생들은 여름방학 중 익산역과 전주역에서 근무하며 여객 및 여행상품 안내, 유실물 처리, 교통약자 도우미 등의 일자리 체험 기회를 갖는다. 김진준 전북본부장은 "이번 국가교육근로 장학사업이 지역학생의 안정된 학업여건과 취업 역량 제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인재 양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레일 전북본부와 연계한 교육근로 장학사업에는 도내 전북대, 원광대 2개 대학이 참여 중이며, 방학 중 운영성과에 따라 학기중으로 확대운영 할 예정이다. /익산=우병희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